

유커, 광주시는 '짠 손'

백화점에서 쓰는 돈 1인당 5~10만원 그쳐...면세점 선호 등 영향

광주를 찾은 중국 관광객이 백화점에서 쓰고 간 돈은 평균 5만~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관광객 큰 손인 '유커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기 항공편과 면세점 등 번번한 쇼핑 시설이 없는 탓이다.

지역 유통가에 따르면 지난 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는 중국인 관광객 200명이 다녀갔다. 오후 4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시간 관광객 여러대가 백화점 정문 앞에 주차됐고, 가족단위 중국인 관광객이 백화점 직원 환영 인사와 갈증해소를 위해 마련된 음료서비스를 받으면서 일제히 백화점으로 들어갔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무안공항이 무비자 입국 환승공항으로 지정되면서 이 백화점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었다.

무안공항을 통해 입국하면 120시간(5일) 동안 무비자로 국내 여행을 할 수 있어 광주·전남권 관광을 즐기는 중국인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이 백화점에서 쓰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집계됐다.

이는 짧은 시간 쇼핑을 마무리해야 하며 다수의 사람과 함께 다니는 어려움이 있어 선호하는 제품만 보고 면세점과 가격차이가 있어 쉽사리 구매로 이어지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언어적 문제가 있어 쇼핑이 자유스럽지 못한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중국인 관광객이 이 백화점에서 가장 많이 구매한 제품은 화장품과 향수였다. 특히 12월~2월에는 중국인의 발길이 줄어든다. 중국과 광주·전남을 잇는 정기 노선 없이 전세기가 운항하지 않는 기간에는 중국인 관광객을 발길이 끊기고 있는 셈이다.



지난 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백화점서 무료로 나눠준 음료를 마시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반면, 제주와 서울, 부산 등지는 밀려드는 중국 관광객들로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마트의 제주 3개 점은 이마트 중국 관광객 매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유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통상 전세기가 운항하는 3월~10월 중국인들이 광주·전남을 많이 찾지만 비수기인 12월~2월에는 중국인의 발길이 줄어든다. 중국과 광주·전남을 잇는 정기 노

선 없이 전세기가 운항하지 않는 기간에는 중국인 관광객을 발길이 끊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을 찾는 상당수의 중국 관광객은 장흥~제주, 제주~장흥을 오가는 여정에 광주를 경유하고 있다.

이에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올 9월부터 백화점 정문에 중국인 전용 안내데스크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

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관광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통역 및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고 중국인 관광객 고객 대상으로 별도 구매고객에게 사은품도 증정한다.

지역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기를 늘리고, 체류형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31.12 (+13.18)
- ↑ 금리 (국고채 3년) 1.25% (+0.02)
- ↑ 코스닥 696.43 (+0.34)
- ↓ 환율 (USD) 1108.30원 (-2.10)

광산업진흥회, 인도네시아 진출 성과

광주 글로벌광통신 컨소시엄 1000만달러 수출계약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는 최근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한 광주지역 광통신 컨소시엄이 현지기업과 1000만달러의 광통신 부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2013년도부터 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해온 광산업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의 결과다.

글로벌광통신(대표 박인철·사진 오른쪽 두번째)이 주관한 컨소시엄에는 고려오트론, 골드델, 링크옵틱스, 옵토마린, 웨이브시스템 등 총 6개의 광통신 관련 기업이 참여했다. 컨소시엄은 인도네시아 내 광통신사업(FTTH·Fiber To The Home)시장에 이번에 계약한 광통신 관련 자재 납품 물량 공급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을 체결한 인도네시아 테크놀로지 가라만다리 관계자는 "한국 FTTH 토털 솔루션의 도입으로 인도네시아 광통신 시장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광산업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추진해온 지 4년째가 되고 있다"며 "해외시장 확대, 유망전시회 공동관 운영, 해외바이어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지역 업체들의 해외진출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영란법' 업종 따라 희비

백화점 5만원 넘는 선물 90%...마트·식품업체 반사이익 기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같은 유통·제조업체라도 업체나 업종에 따라 미묘한 표정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백화점의 경우 90%의 선물세트가 5만원을 넘는 김영란법 저촉 대상인 반면, 마트나 편의점은 5만원 이하 선물 비중이 80~90%에 이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저가 선물세트 구색이 풍부한 식품업체도 반사이익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8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선물세트 매출 가운데 85%는 5만원 이상 가격대의 선물이 차지했다. 현대백화점에서도 올해 설이나 작년 추석 당시 5만원 이상 선물의 매출 비중은 약 90% 수준이었다.

반면 대형할인마트의 입장은 백화점이 아니지만, 식품업체는 고가 선물세트와 다소 차이가 있다. 올해 설 이마트에서 팔린 선물세트 가운데 대부분인 87.8%(수량 기준)가 김영란법과 무관한 '5만원 미만' 선물이었다.

지난해 추석 이마트 선물 중 5만원 미만의 수량 비중도 89.1%에 이르렀다. 매출 기준으로도 작년 추석과 올해 설 5만원 미만 선물의 비중은 67~69% 수준이었다.

편의점의 상황도 마트와 비슷하다. 편의점 세우(CU)의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선물 매출 가운데 각각 70%, 72%가 5만원대 미만의 선물이었다.

식품업체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오히려 명절 선물세트 판매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햄·참치 등 통조림과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는 대부분 5만원을 넘지 않아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추석 선물은 김영란법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식품업체는 고가 선물세트가 위축되는 현상이 미리 나타나면서 합리적 가격대와 실용성을 앞세워 가공식품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드 쇼크' 차이나株 11조2천억 증발

화장품·엔터주 등 한달새 평균 18% 하락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한달간 화장품 등 중국 소비 관련 대표 종목의 주가가 평균 18%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8일 내놓은 '사드 쇼크 1개월, 투자전략의 재구성' 보고서에서 지난 5일 현재 중국 소비 관련 대표주 10종목의 시총이 50조6천억원으로 사드 배치 발표 직전인 7월7일(61조8000억원)보다 11조2000억원 줄었다고 분석했다.

이 기간 코스피는 2.6% 상승했지만 해당 10개사의 주가는 평균 18.2% 떨어졌다.

종목별로는 엔터테인먼트주인 에스엔 주가가 3만8400원에서 1만8150원으로 26.7% 하락해 충격이 가장 컸다. /연합뉴스



S&P, 한국 신용등급 'AA'...11개월만에 최고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11개월 만에 다시 사상 최고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가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제시해 현재 수준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S&P가 8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AA'등급은 전체 21개 등급 중 3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한국이 S&P로부터 AA 등급을 부여받은 것은 사상 최하다.

중국(AA+전망 부정)보다 한 단계 높고 일본(A+)보다는 두 단계 위다.

S&P 기준으로 볼 때 AA는 영국, 프랑스와 같은 등급이다. 다만 이들 국가의 신용등급 전망은 한국보다 나쁜 '부정적'(negative)이다.

S&P는 한국이 최근 수년간 선진 경제

보다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고 지난해 대외수채권 상태로 전환되는 등 대외부담 지표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또 통화정책이 견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해왔다는 점도 등급 상향 조정 배경으로 제시했다.

S&P는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배경에 대해 지정학적 위험이 크게 증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다른 변동 요인이 없으면 앞으로 2년간 신용등급이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는 추가적인 성장률 견조한 경제 성과와 안정성 강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점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들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59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진프리모

대진프리모가발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Step 1. 방수정리
 Step 2. 단열방수시공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이 지원되는 그래픽에서 만나보세요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이 잔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헛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번호: 10-0562035호
 특허번호: 10-1097784호
 특허번호: 10-0548199호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